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선정 2016 출판 키워드

# 'SNS' '페미니즘' '자존감'...

- 1 기계 이용한 인간의 소통·공감
- 2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혐오 논쟁
- 3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성찰
- 4 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
- 5 우리를 지지해 주는 딜레마

'네트워크형 인간의 과학적 사유', '페미니즘', '인공지능', '한강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자존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개년 계획 수립'...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2016출판계 키워드 30'에서 선정한 올해 출판계 키워드다.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다. 국내적으로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모든 세대가 광화문 광장에 몰려 나와 한목소리로 퇴진과 하야를 외칠 만큼 대통령의 거취는 핫이슈였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속을 잡고 광장으로 모이들었다. 소셜네트워크를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한 것이다. 키워드 1위에 선정된 '네트워크형

인간의 과학적 사유'는 이처럼 기계를 이용해 과학적 사유와 공감 능력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김대식 KIST 교수는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에서 "미래에는 약한 인공지능, 인지자동화가 실현되는 순간 정의성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이라는 것은 상황과 세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경 박사는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에서 "인간의 통찰력과 사고력, 기계의 합리적인 사고 혹은 계산력,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를 '네트워크형 인간'이라고 정리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올해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던 '페미니즘'이다.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논쟁은 페미니즘 도서 열풍을 견인했다. 올해에만 출간된 150여 권 가까운 여성학과 젠더 관련 책들이 발간됐으며 몇몇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만큼은 문화적 소비가 아닌, 건전하고 바람직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야만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3위는 '인공지능'이 뽑혔다. 지난 3월 바둑대결에서 알파고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뛰어난



## 마음으로 담은 내고장 전라도

###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사진동호회 내일까지 사진전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사진동호회 '상상클럽'(회장 박정준)이 15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세상나들이'를 주제로 두번째 회원전을 연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지난 1년간 전주 한옥마을, 진도 팽목항 등 전라도 곳곳을 다니며 촬영한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자원봉사자들이 피사체를 설명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가며 머리 속에 모습을 그린 후 찍은 작품들이다. 강금자 회원이 출품한 '잊지 못할 그곳'은 진도 팽목항을 담았다. 멀리 보이는 안개에 쌓인 섬과 난간을 따라 매달린 노란 현수막이 어우러지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

김현군 회원은 정감 어린 휴담을 렌즈에 담은 '무제'를, 박정준 회장은 풀잎으로 만든 배를 들고 있는 '손 안에'를 전시한다. 그밖에 이재화 회원은 방파제를 찍은 '자유', 조성백 회원은 강아지풀을 찍은 '가을', 조성숙 회원은 저무는 태양을 찍은 '일몰'을 선보인다.

박 회장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상상클럽 활동으로 이어졌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상상클럽은 같은해 12월 처음 회원전을 열었고 매년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062-415-9527. /김용희기자 kimyh@



조성백 '가을'

## 여성친화적 문화전당 모색

### '여성참여' 오늘 DJ센터서 세미나

비영리단체인 '여성참여'는 14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여성친화적 모니터링과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혜자<사진> 전 국회의원(민주당)의 기초발표에 이어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와 고민석 사)한국경영평가연구원 이사장의 연구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전당 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해 조영민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이순미 건축사, 정연철 호남대 교수, 이원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전당에 대한 전문가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 대규모 문화시설을 여성친화적인 관점으로 조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1987년 10월19일 월요일. 뉴욕 링컨센터의 수석연출가인 버너드 거스틴(Bernard Gersten)은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살았다. 이날은 미 다우지수 사상 유례없는 22.6%의 폭락장을 기록한 '블랙먼데이'. 월스트리트의 증권맨도 비즈니스 맨도 아니었지만 거스틴의 가슴은 누구보다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 날 저녁 오프닝 공연을 앞둔 뮤지컬 '에니싱 고스(Anything goes 무엇이든지 된다)' 때문이었다.

'에니싱 고스'는 뉴욕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초호화 여객선 'S.S American'을 배경으로 승객들의 유쾌한 해프닝을 담은 코믹 뮤지

컬. 1934년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 속에서도 무려 450차례나 매진을 찍는 진기록을 거뒀다.

거스틴은 1934년 뉴요커를 사로잡았던 '에니싱 고스'를 다시 무대에 올리기 위해 1987년 10월19일 공연을 목표로 3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증시폭락으로 오랫동안 공들여온 뮤지컬이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지는 판에 뮤지컬이냐니. '브로드웨이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거스틴이라도 흥행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가. 반가운 뉴스 하나 더. 문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내년도 문화정책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지만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예산은 162억원으로 오히려 10% 증액됐다고 밝혔다.

요즘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문화 예산 분야가 직격탄을 맞는 만큼 문화예술관련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배려에서다.

일상이 각박해질수록 따뜻한 시 한편과 그림이 위안을 줄 때가 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팍팍한데 무슨 한가하게 '그림타령'이라고 하겠지만 평소 문화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안다. 예술적 감동과 함께 있고 지냈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 다가오는 세밑과 신년에도 문화로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1987년 '에니싱 고스'를 보며 10월 블랙먼데이의 암울한 밤을 달랠던 뉴요커들처럼.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게 매일 마지막 수요일마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이다. 문광부에 따르면 지난날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전국 문화시설과 단체의 프로그램 수는 2657개로 작년 11월(2081개)에 비해 27.7% 증가했다. 이는 처음 시행된 2014년 1월 88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문광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내년도 문화정책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지만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예산은 162억원으로 오히려 10% 증액됐다고 밝혔다. 요즘처럼 불경기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문화 예산 분야가 직격탄을 맞는 만큼 문화예술관련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배려에서다.

일상이 각박해질수록 따뜻한 시 한편과 그림이 위안을 줄 때가 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팍팍한데 무슨 한가하게 '그림타령'이라고 하겠지만 평소 문화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안다. 예술적 감동과 함께 있고 지냈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 다가오는 세밑과 신년에도 문화로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1987년 '에니싱 고스'를 보며 10월 블랙먼데이의 암울한 밤을 달랠던 뉴요커들처럼.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사진전시관 운영 세미나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사진전시관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전시방향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를 15일 오후 3시에 연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이규상 눈빛출판사 대표는 '국외사진미술관 및 사진이벤트'에 대해 살펴본다. 21세기 미술관과

박물관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진 전문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진현 광주일보 부국장, 최영태 광주사진협회 사무국장, 이정록 사진작가, 양종훈 한국사진학회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613-71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